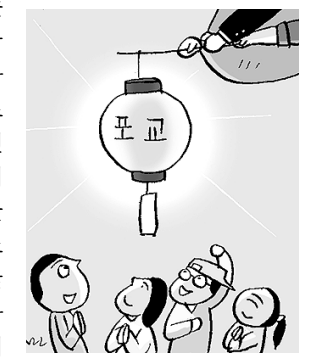




속제 많은 청년 포교

청년불교에 적색등이 켜졌다. 또한 국대학생불교연합회도 위기를 맞았다. 2002년 12월 회장선거에서 회장 후보가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아 비상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일을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현상은 대불련 4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놀라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조계종 포교원과 대한불교청년회가 실시한 '청년불자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 1996년 284명에 이르던 대불청 지회수가 2001년 124개로 절반이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불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49.4%로 가장 많아 96년 30세 이하 회원이 70.7%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5년 동안 신입회원 일회가가 저조하여 청년 불자들의 연령층이 노령화되고, 인원의 감소현상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어



인식·제도·인프라 총체적 변화 필요 청년단체 의욕과 신념 확고해야

원 8,292곳 중 불교계가 운영하는 유치원은 265곳으로 3.2%에 불과해 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어린이 포교시스템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타종교에서는 청년선교에 사목과 종단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종교의 미래가 청년층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불교계에서도 청년포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무엇 때

문인지 종단과 각 사찰이 청년포교에 인색하게 대처하고 있기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불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과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고 더 큰 것은 청년단체의 자구책 마련이다. 청년 불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스스로의 조직체를 우리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둘째, 불교계 각 종단과 교구본사별 예산에 10%이상을 청년불자 포교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 범불교적으로 청년불자포교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에 유지원 개원, 청년회화대, 대불련지회화당 등의 목표를 설정,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스님은 일정 기간(3~5년) 유지원 또는 중·고등학교 불교학생회, 대불련, 대불청 산하 지회단위 단체 상임지도부

사 활동실적을 필수로 하는 중 단내 중요 직책(주지, 주석, 총무원, 간부 등) 임명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불교아카데미(가칭)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재가불자를 유급포교사로 임용하여 교구본사단위 또는 행정구역단위로 전국에 150명 이상 배치하여 청년 불자 포교에 전념토록 하여야 한다.

청년포교는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다. 이 때문에 불교계는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뿌린 만큼 거둔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

■ 성기태(총주대학교 총장)

고대에서 중세까지 조계종사 한눈에

'조계종사-고·중세편' 완간...강원등에 보급

조계종의 성립과 한국 불교 1700년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계종사-고·중세편>가 5월 25일 완간됐다. 2001년 12월 <조계종사-근·현대편>을 펴낸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번에 나온 <조계종사-고·중세편>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시대를 구분해 따라 불교의 변화와 흐름을 담았다. 내용은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발전 △통일신라시대 선의 도래와 종조 도의국사에 의한 조계종 성립 △고구려시대 조계종의 발전과 사상적 특성 △조선시대 조계종의 시련과 극복 등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최화은)은 종단의 첫 공식 역사서인 <조계종사>를 대중과 대중승가대, 전문강원과 사찰, 신도회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계종사를 정교목적으로 정해 놓고 종단차원의 정식교재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던 승려 전문교육기관과 신도교육기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계종사> 간행을 담당한 조계종사 편찬위원회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부족했던 도의국사(道義國書) 이전의 한국불교사에 대한 규명과 조계종법통 정립문제, 중전조(重團祖)로서의 위상문제 등을 중심으로 종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계종사 고·중세편>의 연구 및 집필은 김상현, 조홍 스님, 호안 스님, 승원 스님, 김상영, 조법환, 차차석, 최연식, 황인규, 한상길, 김방용, 김용태 등 12명이 맡았다. 조홍수 기자

불교 114 이제 '불통'

인력·시스템 부족으로 서비스 중단

사람 및 불교단체의 연락처 및 각종 불교관련 정보를 안내해 온 '불교114 안내서비스(이하 불교114)'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최근 모든 서비스를 중단했다.

95년부터 불교114를 운영해왔던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114가 상담전문기관 사업으로서 성격이 맞지 않고, 전문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인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중·고령층 이용자와 오지 주민 등의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이후 관련 조계종 포교원은 '이후 추진되는 총무원 총무부와 포교원 신행정정보센터 등 유관부서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경 기자

'조동선림' 법인 설립 대표 학봉 스님

한국조동종 총본산이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설립(허가 2004-3회)을 5월 26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조동선림은 앞으로 서울 효자동 원효사를 중심으로 △조동선과 선학의 연구개발 △불교사상의 포교와 원리 연구 △국내외 불교 학술교류 △조동선 학사 출판 및 정기간행물 발간 등의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중앙기관장 임명 원용중, 승정원장 등

원용중(총무원장 법륜)은 최근 서울 구로동 원효사에서 승정원장, 문화원장 등 중앙종무기관장 임명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승정원장 성건 스님과 중앙총무장 의상 스님, 문화원장 재관 스님, 포교원장 벽봉 스님, 규장원장 정관 스님, 교육원장 화담 스님 등이 원용중 종정 일공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박봉영 기자

강하게... 투명하게...

태고종, 종도대표가 총무원감사 등 개혁 '시동'

태고종 총무원이 종도들이 뽑은 대표로부터 종단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직접 받게되고 나서 주목된다. 또 이를 통해 중앙종무기관이 강력한 중립을 행사하는 등 총무원장 집행구조를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6월 중순께 열리는 중앙종회에 앞서 종단 산하 19개 시·도교구에서 각각 1명씩 뽑은 종도대표들이 참여하는 회계 및

종단내 판매에 있는 총무원에 대한 불신을 털고 투명한 총무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총무원의 강한 의지로 분석된다. 태고종은 조계종 다음으로 규모가 큰 종단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종단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 특히 종단 구성원의 결속력이 약하고 총무원 행정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립 행사를 통해 종단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운산 스님은 "이제는 사람과 종도들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종헌·종법을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태고종 총무원은 종단 재정 확충을 위해 공사할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총무원 직원 사찰을 점차 늘려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인천 용궁사, 완주봉서사 등 직역사찰의 재정 운용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운산 스님은 향후 종단운영 방향에 대해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종단 풍토를 조성하고, 부서별 전문행정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운용 등에 맞춰 불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화합·신뢰회복·행정력 강화" 분담금 미·체납엔 기본권 제한

이에 따라 태고종 총무원은 을 하반기부터는 총무행정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종도와 사찰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종단결속력 저해인으로 꼽혀온 분담금 미납 또는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방침이다.

이는 제2종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종단인권의

을 하반기부터는 총무행정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종도와 사찰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종단결속력 저해인으로 꼽혀온 분담금 미납 또는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방침이다.

을 하반기부터는 총무행정과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종도와 사찰에 대해서는 종헌·종법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종단결속력 저해인으로 꼽혀온 분담금 미납 또는 상습적인 체납에 대해서도 각종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력히 취할 방침이다.

"불교계 노인요양시설 참선·다도 등 꼭 해야"

문화공간 서비스 다양해야 권경임씨 '불교와 문화'서 주장

'불교계 노인요양시설의 이 상적인 모습은 어떨까?' 종교아동복지포럼 권경임 회장은 격월간 <불교와 문화> 5·6월호에 기고한 '불교계에도 현대적인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에서 참선, 다도, 요가, 선체조 등 불교적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이를 위해 △자재법단 운영 △불교계 인·물적

을 겨냥한 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문화공간을 배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집호에서 중앙승가대 대학 포교사회학과 김용철 교수는 무료·실비·유료 노인시설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최신식 시설, 전문성 확보, 지역 사회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이 고루 갖춰져야만 이상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단차원의 노인복지시설 정보와 지원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을 겨냥한 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문화공간을 배지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특집호에서 중앙승가대 대학 포교사회학과 김용철 교수는 무료·실비·유료 노인시설의 운영사례를 분석한 논문에서 최신식 시설, 전문성 확보, 지역 사회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이 고루 갖춰져야만 이상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종단차원의 노인복지시설 정보와 지원을 위한 '윈스톱' 서비스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200여 권 단편집 (홍등책), 200 권 단편집 (유영의 집), 200 권 단편집 (목련초). 2,800원. 범우사.